

운젠 온천 역사 탐방 코스 : 온천 신사

온천 신사는 시멘구라고도 불리며, 700년대 초에 운젠에 규슈의 수호신을 모시기 위해 세워졌습니다. 이곳에는 시라히와케노미코토(白日別命), 다케히와케노미코토(建日別命), 도요히와케노미코토(豊日別命), 도요쿠지히네와케노미코토(豊久土比泥別命)라는 4신(시멘신)이 모셔져 있습니다. 이 시멘신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“고사기” 속에 나오는 쓰쿠시노시마(현재 규슈)의 건국신화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며, 규슈의 영산 중 하나인 운젠다케의 수호신입니다.

시멘구는 시마바라반도에 있는 17개 온천 신사의 총본사입니다. 운젠에서 가장 먼저 발전한 사찰군 중 하나로서 시멘구는 천년이 넘는 세월동안 신앙의 중심지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.